

미국·북미	중국	일본	아시아·호주	유럽	중남미·중동·아프리카	국제	글로벌CEO
-------	----	----	--------	----	-------------	----	--------

	R\$ 238,99	R\$ 299,00	R\$ 249,99	R\$ 302,70
--	------------	------------	------------	------------

아마존, 벌채 전년비 5배 급증... 열대우림 파괴면적 1월 최고 기록

김세업 기자 입력 2022-02-15 13:58

가 가

- 공유 0
- f
- Twitter
- Print
- TALK
- Envelope



브라질 아마존의 열대우림 벌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삼림 벌채는 전년 동기 대비 5배 급증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브라질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통제하겠다는 최근 약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파괴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1월 한 달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최다 삼림 벌채를 기록했다.

오늘의 주요뉴스

[초점] 중국 등 각국 곡물 사재기...이슬람권 식량난 예고



우크라 전쟁·서방제재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



'디파이 대부' 안드레 크로네, 암호화폐 떠난다



얼어붙은 청약 시장...서울 청약 경쟁률 '반토막'



국제유가, 배럴당 140달러 육박...러시아산 원유수입금지...



	R\$ 353,30	R\$ 89,99	R\$ 594,15
	R\$ 353,00	R\$ 389,90	R\$ 509,15

글로벌비즈 실시간 뉴스

13분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향후 전개될 '4대 시나리오'는



브라질 과학 기술 혁신부의 우주 연구 기관 Inpe(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의 예비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의 지난 달 삼림 벌채는 총 430평방 킬로미터(166평방 마일)로 2021년 1월보다 5배 더 많았다.

이는 현재 데이터 시리즈가 2015/2016년에 시작된 후 1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맨 해튼 크기의 7배가 넘는 면적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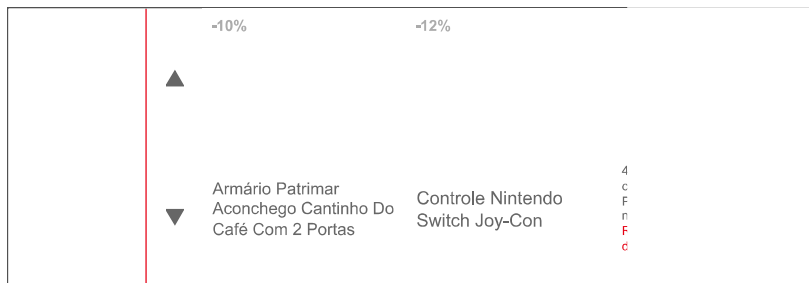
환경 연구자들은 파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고 말하며 2019년 집권 이후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환경 보호 약화를 지적했다.

미나스 제라이스 연방 대학(Federal University of Minas Gerais)의 환경 모델링 연구원인 브리탈도 소아레스 필호(Britaldo Soares Filho)는 점점 더 많은 투기꾼들이 목장을 만들기 위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이 토지를 불법 수탈하여 산림을 개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쇠고기, 콩 및 기타 상품의 높은 가격도 값싼 아마존 토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삼림을 없애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혹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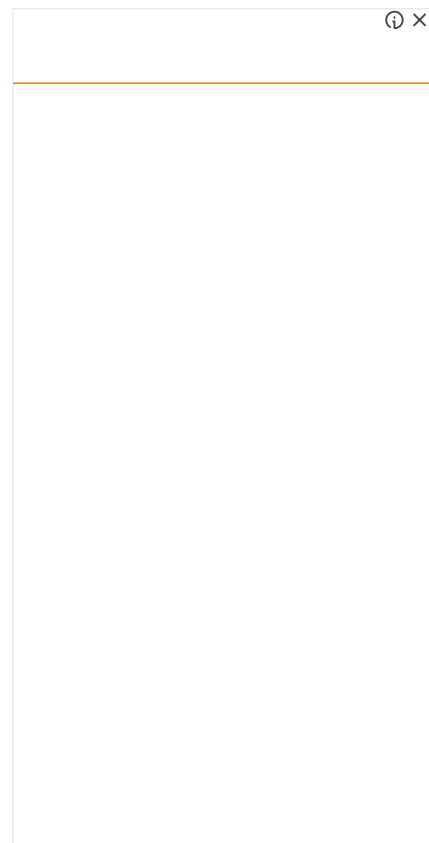
보우소나루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브라질 환경부는 8월부터 1월까지 삼림 벌채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며 단일 달로 비교하는 것은 최선의 그림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이 기관은 "연방정부는 2022년에 환경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세계 최대 열대 우림인 아마존의 보존은 나무에 흡수되는 엄청난 양의 온실 가스 때문에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국제유가 폭등세 다소 진정...130달러 넘어선터 WTI 배럴당 120달러 밑돌아



에너지 업종 둘러싸고 이견..."매수 기회" VS "매각 시기"



32분전 우크라이나 침공유가 급등으로 S&P500 지수 전망 줄줄이 하향



빌 애크먼 "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3차 대전 이미 시작" 경고



러시아-우크라이나 4차 휴전회담 급물살, 전투중단 vs 나토가입 철회



Hot 포토



임신 5개월 이하니, 통통해진 볼살?



설현, 의미심장 글..."나로 살아가기..."



최진실 딸 최준희 배우 데뷔, 견미리 딸...



윤아, 러블리 화이트 슈트 셋업 완벽 소화...

보우소나루는 아마존 지역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아마존에서 더 많은 상업적 농업과 광업을 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미국과 유럽의 국제적 압력에 직면한 브라질은 작년에 2028년까지 불법 삼림 벌채를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2030년까지 모든 산림 파괴를 중단하기 위한 글로벌 협약에 서명했다.

이런 약속 직후, Inpe는 브라질 아마존의 2021년 삼림 벌채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1월의 예비 데이터는 파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라질리아 대학의 정치학자인 아나 카린 페레이라(Ana Karine Pereira)는 보우소나루와 그의 정부가 작년에 입장을 바꿨지만 정책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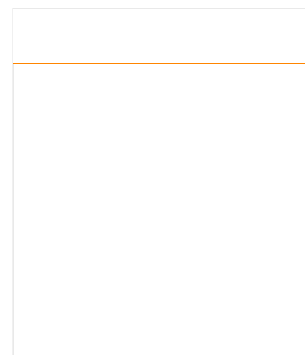
소아레스 필호와 페레이라는 보우소나루가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야 삼림 벌채의 증가가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레이라는 "대통령과 연방 정부 지도부의 정치적 프로필을 바꾸는 것은 이 순간 높은 수준의 삼림 벌채 추세를 중단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벌목꾼이 열대우림에 접근하기 더 어려운 현재의 우기에 높은 삼림 벌채는 이례적인 일이다.

익명의 비공식적 일부 전문가는 "아마존 우림 상공에 짙은 구름대가 형성되면 제대로 관측할 수가 없다. 1월 삼림벌채의 급증은 아마존 상공의 구름대가 얇아 졌기 때문일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9시간전 러시아-우크라 3차회담, 벨라루스 국경서 개최...우크라 "나토 가입 포기 가능성"



러 불쇼이극장 수석 지휘자, "우크라 침공 러 비난하라" 압력 받고 사임



많이 본 기사

- 1 러시아 포격 중단 "통보" 3차협상 급물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
- 2 러시아, 한국에 보복 경고 우크라이나 불통
"비우호국가" 지정
- 3 푸틴, 우크라 침공중단할 수도, 러시아 요구
들으면 바로 철수
- 4 러시아-우크라 4차 휴전회담 급물살,
전투중단 vs 나토가입 철회
- 5 러시아-우크라 3차회담, 벨라루스 국경서
개최...우크라 "나토 가입 포기 가능성"

글로벌 슈퍼리치